

#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김성규  
코리안신륙발견모임 창설자/ 회장

## A Study of the Whale Road of the North Pacific Coastlines and the Amaknak Whalebone Mask

Sung-Kyu Kim  
The Korean New World Discovery Society, Founder/ President

### 요 약

아메리카 新大陸으로의 移駐論은 기존의 베링해 랜드브릿지론에서 海岸線 루트 이주론인 이른바 Beach to Beach Theory로 그 주류가 이동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東北아시아에서 先史時代 반구대인들이 가장 먼저 新大陸 아메리카에 도달했을 수 있는 地理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2007년 美 고고학계는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에서 3,000년 전 ‘코리안 온돌(Korean Ondol)’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자는 추가 추적에서 같은 온돌터에서 고래뼈로 된 탈 (Whalebone Mask)이 발굴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내 반구대 고래 암각화를 그린 선사시대 코리안들이 고래 길 (Whale Road)을 따라 그 어느 민족보다 먼저 ‘코리안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The Korean Discovered The New World)’라는 획기적인 주장을 2009년에 펼쳐 한미 양국의 언론으로부터 센세이셔널하게 소개되었다. 본 研究는 필자의 기존 발표를 바탕으로 아막낙 온돌과 고래뼈 탈 문화는 선사시대 코리안 고래잡이들이 베링해로 이주해 간 결과라는 것을 현지 답사 형식으로 정리한 論文이다. 특히 베링해 우난간(Unangan) 원주민들의 고래잡이 風俗과 코리안 전통 문화의 그 類似性을 비교하여 선사시대 동해안 코리안 고래잡이들이 북태평양 웨일로드(Whale Road)를 따라 신대륙으로 가장 먼저 가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地理-生態學的, 歷史-考古學的 배경을 입체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 ABSTRACT

Since the 2003 Annual Meeting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the main issue of the migration route to the New World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from "the Land Bridge Theory" into "the Beach to Beach Theory." Consequently the world wide interest has been fueled by archaeological evidences that 3,000 years ago prehistoric Korean whalers left Ondols and Whalebone Masks on Amaknak Island in the Aleutian Archipelago. The Korean Peninsular can be first considered as the most possible and nearest area to reach the New World, following the Belt of Kelp Forest and the Grey Whale Rout of North Pacific. Based on these facts, since 2009 I have declared that "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 which have been sensationally issued from the media both in the USA and the South Korea. This paper will analyse the excavation facts of the 3,000 - 4,000 years old Korean Ondols and Whalebone Mask. Comparing the facts that the Unangan whalers' culture are various similar to the Korean traditional whaling culture, this paper will prove that the prehistoric Korean whalers discovered the New World Americas.

*Keywords:* Beach to Beach Theory, Amaknak Island, Whalebone Mask, Unangan, Korean Stock of Grey Whale, Whale Road, Belt of Kelp Forest, Umiak, Skin Boat, Kayak, Karak(鷺洛), Bronze Buckle, Cape Espenberg.

### I. 서론

1990년대까지는 신대륙으로의 이주론에서 베링해협 랜

드브릿지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의 랜드브릿지론(Land Bridge Theory)은 해안선 루트 이론(Coastline Migration Rout)에 의해 그 위치를 빼앗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2003년 11월 5일 시애틀에서 있었던 아메리카지질학회(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연례 컨퍼런스는 베링해 랜드브릿지설을 뒤집고 북태평양의 Beach to Beach

투고 일자 : 2014. 9. 5.,      게재확정일자 : 2014.11.30.  
교신 저자 : 김성규

Theory(해안선 루트론)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그 변화의 획기성은 같은 해 *National Geographic News*에서 ‘최초의 아메리칸들은 육지와 바다로 왔나(Did First Americans Arrive By Land and Sea?)’라는 제하의 기사로 특집 보도되었다.<sup>1)</sup> 뉴욕 아이다카 칼리지(Ithaca College) 인류학과 잭 로센(Jack Rossen)은 미역은 북태평양 해안선 이주자들의 생태환경을 제공해주는 생태띠를 이루고 있었다<sup>2)</sup>고 주장했다. 미역 숲 벨트는 한국계 귀신고래(The Koran Stock of Grey Whale) 왕래 길에 포개진다. 그 선상에 있는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에서 3,000년 전 코리안 온돌(Korean Ondol)과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이 발굴되었다. 그 발굴은 세계 最古 고래암각화인 반구대암각화(Bangudae Petroglyphs, 盤龜臺岩刻畫)와의 연계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필자가 2009년 5월 26일 미국 아이오와주 디코라 시티 초청강연에서 최초로 ‘코리안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 Americas)’는 획기적인 이슈를 주장했다.<sup>3)</sup> 시카고 필드뮤지엄(Chicago Field Museum)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이러한 海岸線 이주 루트론을 크게 알리기 시작했다.<sup>4)</sup>

Beach to Beach의 고래 길을 따라 코리안들의 신대륙 이주 루트는 고래 뼈와 온돌 유적들로 이어져 있다. 울산 반구대의 고래암각화와 고래뼈 탈 암각화, 함경도 서포항 유적에서 발굴된 3,000년 된 고래뼈로 된 노(櫓, row)와 고래 뼈 탈, 2,500년 된 北沃沮 쪽구들 온돌, 아막낙 섬(Amaknak Island)에서 발굴된 3,000년 전의 쪽구들 온돌과 고래뼈 탈, 캄차카반도 원주민들의 가족 명칭은 코리안들과 거의 일치한다.

아막낙 섬에서 발굴된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은 北沃沮 쪽구들 온돌 사이가 5,0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Beach to Beach Theory나 아메리카지리학회 2003년도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간과한 것이다.<sup>5)</sup>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GPS를 장착한 한국계귀신고래 두 마리가 오호츠크해에서 바하 캘리포니아까지 태평양 兩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켰다.<sup>6)</sup> 따라서 3,000년 전 아막낙 섬에 온돌(Ondol)을 남긴 코리안 고래잡이들(Korean Whalers)이 귀신고래 루트를 따라 이주해 가 아막낙 섬에 온돌을 남겼을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다. 표 1에서처럼 결국 Beach to Beach 해안선 루트론은 신대륙발견 루트 논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표 1. Beach to Beach論의 새로운 카테고리

	新大陸 移駐論에서 Beach to Beach Theory 영향의 새로운 研究方向
1)	선사시대 東北아시아인들은 베링해까지 수천km 거리일지라도 海岸線 生態環境이 이주를 가능하게 함.
2)	氷河期와 관계없이 海岸線 루트는 작은 보트로도 石器時代에도 歷史時代에도 新大陸으로의 지속적 移駐가 가능했다는 논리 전제가 가능하게 됨.
3)	연해주 北沃沮 온돌과 알류산열도 아막낙 온돌처럼 아메리카에서 발굴되는 先史時代 및 歷史時代 유물 유적들이 동아시아에서 건너간 증거들로 주목받을 수 있다.
4)	한반도 코리안 선박문화 및 고래사냥 문화와 베링해 원주민 고래문화 사이의 유사성은 歷史的 연계가 있다.

얼랜슨 교수가 2003년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컨퍼런스 발표에서 북태평양 “해안선과 미역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 이주를 위한 생태적 컨택스트<sup>8)</sup>이자 바하 캘리포니아에 걸친 ‘미역 하이웨이(Kelp Highway)’<sup>9)</sup>라고 한 것은 일본보다는 오히려 한국계 귀신고래 길 그 자체가 오히려 코리안 고래잡이들의 이주길을 증언하는 셈이다.

미역 루트가 강조될수록 코리안들은 미역을 먹는 민족으로 이웃나라들이 먼저 인정해온 역사가 드러난다.<sup>10)</sup> ‘떡감다’는 말은 고래와 해달이 몸에 ‘미역 감는’ 것을 보고 만들어진 말이었다.<sup>11)</sup> 알류산열도 우난간(Unangan) 원주민 族長들이나 朝鮮時代 王들은 염습에서 棺에 미역을 감았던 공통점이 있다.<sup>12)</sup> 북태평양 연안 미역 벨트는 귀신고래 길에도 일치하여 마른 미역은 이동용 식품으로 사용되었다. 14,000년 전의 남미 몬테 베르데(Monte Verde) 유적에는 해안선으로 온 것을 증명하는 10가지 이상의 미역이 발굴되었으며 그 일부는 북아메리카 로키산맥 해안지대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sup>13)</sup>

이미 1970년대에 너트 플래드마크(Knut Fladmark)는

1) *National Geographic News*, November 6, 2003.  
 2) Keith Davis, "The Seaweed Trail: Peopling the Americas," *Past Horizons Adventures in Archeology*에서 재인용.  
<http://www.pasthorizonspr.com/index.php/archives/10/2011/the-seaweed-trail-peopling-the-americas>  
 3) 2009년 11월 24일 조선, 동아, 중앙, 경향, 한국일보, 한겨레 등 대다수 언론들이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선사시대 코리안이 美 신대륙 최초 발견?” 연합뉴스, 2009년 11월 24일 보도. “선사시대 한반도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뉴시스, 2009년 11월 24일.  
 4) 시카고 필드뮤지엄은 2007년 4월 이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동북아시아 기원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  
 5) 서울대 송기호 교수는 아막낙 섬과 연해주의 거리상 쪽구들이 서로 무관하다고 말했다; The Chosunilbo, "Ancient 'Ondol' Heating Systems Discovered in Alaska" 조선일보 영어판 2007년 6월 26일자. 필자에게 자문을 받은 KBS 다큐공감 '한반도에서 알래스카까지! 고래의 길을 가다'(2014년 11월 1일 방송) 참조.  
 6) News & Research Communications. The Oregon State University,

7) 김성규, “코리안신대륙발견 시원지, 울산반구대 암각화”, 한국고래문화학회논문지(2013울산고래축제학술세미나), 한국고래문화학회, p.35. 2013.  
 8) Jon M. Erlandson, Michael H. Graham, James A. Estes, Bruce J. Borque, Debbie Corbett, Robert S. Steneck, "Coastlines and kelp beds: an ecological context for maritime migrations to the America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35(6): 2003.  
 9) Jon M. Erlandson et al., "The Kelp Highway Hypothesis: Marine Ecology, the Coastal Migration Theory, and the Peopling of the Americas" *Journal of Island & Coastal Archaeology* Vol. 2 Issue 2 pp.161-174. 2007.  
 10) 徐兢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고려인들은 미역을 귀천 없이 먹고 있다”라든지 명대(明代)의 [本草綱目]에서도 “고려인들은 미역을 특히 좋아한다(高麗人非常愛吃海帶)”라고 했다.  
 11) 김성규, “1만년고래나라: ‘떡감다’는 어원은 고래가 ‘미역 감다’에서 유래,” <http://cafe.daum.net/zoomsi/i7Ny/60>  
 12) “Mummies,” Native American Nations, <http://www.nanations.com/burialcustoms/mummies.htm>  
 13) Tom D. Dillehay, et al., “Monte Verde: Seaweed, Food, Medicine, and the Peopling of South America,” *Science* Vol. 320, p.784, 9 MAY 2008. 화덕 가까이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상시적으로 미역을 먹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어지는 해안선(coastline)을 따라 작은 보트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海流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sup>14)</sup> 아막낙 섬에서 발굴된 3,000년 전 온돌이 코리안 온돌인 이유는 발굴자들의 표현 외에도 先史時代 우리 민족문화의 키워드들인 미역-해달-고래-온돌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진 집합적 고래잡이 노마드(Whaling Nomad) 길이며 웨일로드 文明(Whale Road Civilization) 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 II. 본론

### 2.1 고래뼈 대들보와 고래뼈 서까래 지붕

2007년 美고고학회 잡지인 *Archeology* (June-July)에서 발표한 알류산열도 아막낙섬에서 발굴된 온돌을 특히 'Korean Ondol'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고고학계에 놀라운 화제가 되었다.<sup>15)</sup> 필자는 2009년 미국에서 선사시대 반구대 코리안들이 고래를 따라 알래스카로 이주해 갔다는 코리안 신대륙발견론을 최초로 주장하여 韓美 양국의 미디어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sup>16)</sup>

아막낙 온돌 발굴을 담당했던 스코틀랜드의 에버딘대(University of Aberdeen)의 고고학 교수인 릭 크넥(Rick Knecht)은 알류산열도에서 발굴을 계속하면서 2012년 필자의 강연 내용이 보도된 *Dutch Harbor Telegraph* 탐뉴스를 접한 뒤에 알류산열도 온돌과 코리안 온돌의 연관성으로 의견이 기울어졌을 것이다. 크넥(Rick Knecht) 교수는 아막낙 온돌이 '코리안 온돌'이라는 것에 대하여 애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선사시대 코리안 고래사냥꾼들이 고래를 따라 알래스카로 와 온돌을 남겼을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시아 해안의 사람들이 고래나 바다동물들을 따라 알래스카로 왔을 것이며 베링해 온돌과 한국 온돌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관성이 있었다"고 최근 증언했다.<sup>17)</sup> 국제온돌학회 김준봉교수도 처음과는 달리 '고래길과 온돌의 길이 일치한다'는 필자가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 합류했다.<sup>18)</sup>

발굴자들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아막낙 온돌집 지붕의 대들보와 서까래는 고래뼈(Whale Bones)였다는 사실이다.<sup>19)</sup>

동해안에 '물 반 고래 반'<sup>20)</sup>이었던 코리안들도 고래 뼈 지붕을 했을 근거는 판소리 고전 [沈淸傳]에서도 볼 수 있다.<sup>21)</sup> 카약(Kayak)이나 우미악(Umiak)의 골조도 고래뼈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선박 가운데는 '置火牀作溫突'이라 하여 온돌배도 존재했다는 면에서,<sup>22)</sup> 바다와 육지 양면에서 '구들고래 온돌에 고래등 지붕'과 '구들고래 배'의 전통을 볼 수 있다. 아막낙 섬의 구들고래 - 고래뼈로 된 대들보 서까래 온돌집은 코리안 고래사냥꾼들의 고래문화의 결과로서 구들고래는 온돌 그 자체이면서 고래등 집이다.



그림 1. 고래뼈 지붕을 했던 아막낙 섬 코리안 구들고래(왼쪽)<sup>23)</sup>와 Thule Whalebone House. (오른쪽)

필자는 고래길을 따라 아막낙 온돌터를 최초로 답사한 韓國人이다. 최근 KBS가 필자에게 자문을 구해 필자의 발자취를 따라 고래길과 온돌길을 취재했다. 현재 온돌 발굴지는 흙으로 덮여 터만 남아 있고 발굴된 유물은 아막낙 섬에 위치한 알류산 박물관(Aleutian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알류산 박물관 1층 홀에는 아막낙 온돌터 發掘圖와 설명을 붙여 발굴 사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었다.<sup>24)</sup> 24기나 발굴된 아막낙 온돌은 "Slab-lined hearths were built into the wall(구들돌을 덮은 아궁이가 벽으로 이어져 있었다)"<sup>25)</sup>라는 표현에서 한국 전통 온돌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발굴자나 컨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은 "Ondol-like" 또는 "Korean Ondol"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다.

### 2.2 아막낙 온돌터에서 나온 고래뼈 탈

필자가 2012년 8월 1일 알류산열도 아막낙 온돌터를 답사하면서 그곳 알류산 박물관에 소장된 온돌터에서 나온 수 백점의 유물들을 확인하면서 촬영한 그림 3의 오른쪽의

14) Knut R. Fladma, "Routes: Alternate Migration Corridors for Early Man in North America," *American Antiquity*, 44(1), 1979.

15) American Archaeological Society. *Archeology*, Vol.60 No.3, May - June 2007.

16) The Dutch Harbor Telegraph, Aug. 4, 2012, Did Koreans Discover The New World?, 연합뉴스, "선사시대 코리안이 美 신대륙 최초 발견," 2009년 11월 24일. 인용보도매체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포털다음, 포털네이버, 포털google, 포털야후 등등. 연합뉴스, "인터뷰: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 김성규 회장," 2012년 8월 21일.

17) 우석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3차 국제온돌학회. Richard Knecht and Richard Davis, "The Amaknak Bridge Site: Cultural Change and the Neoglacial in the Eastern Aleutian." *Arctic Anthropology* 45(1), p.76, 2008. Robert Henvell, *Aspects of Aleutian Prehistory*, March, 14, 2011. KBS 다크공감 상계방송물.

18) KBS 다크공감 '한반도에서 알래스카까지! 고래의 길을 가다'(2014년 11월 1일 방송)는 제작진들이 필자에게 수십차례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다.

19) Therkel Mathiassen, *Archaeology of the Central Eskimos*. Copenhagen: Glydendalske Boghandel. 1927. Rogers (2011), p.106에서 재인용.

20) Roy Chapman Andrews, "Monographs of the Pacific Cetacea. K The California Gray Whale (Rhachianectes glaucus Cope)." *Memoirs of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New Series*, 1(5): pp.227-287 + pis. 19-27, 1914. 위스칸신주 벨로이트 시시에 있는 앤드류스의 생가와 묘소를 필자는 여러 차례 직접 답사했다.

21) "집치레 볼죽시면 능난하고 장홀시고, 고래뼈로 대들보를 삼으니(卦鯨骨爲樑) 영광이 요일이요, 물고기 비늘로 기와를 삼으니(集魚鱗以作瓦) 서기 반공이라", 완관본 [沈淸傳], 정하영역주,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154, 1995.

22) 申景濬(1712~1781) 船車制說, [旅菴全書]. 김성규, "조선시대에 숯과 고래기름을 때는 온돌배가 있었다!"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ZxB1/245>

23) 사진: 알류산박물관. <http://www.aleutians.org/UNL-50.html>

24) 김성규, "아막낙섬 온돌터에서 발굴된 알류산 박물관 소장 유물들,"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ZxB1/183>

25) Rogers, Jason S. 2011 Architecture and Complex Hearth Features at the Amaknak Bridge Site, Eastern Aleutian Islands, Alaska. *Arctic Anthropology* Vol. 48, No. 2, 2011.

아막낙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은 알류산열도 아막낙 브릿지(Amaknak Bridge Site) 온돌터(UNL-050)에서 발굴된 3,000년 전의 고래뼈 탈이다.<sup>26)</sup>



그림 2. 반구대암각화의 ‘탈암각화’(왼쪽), 발굴당시 아막낙 섬의 고래뼈 탈(Whalebone Mask)(가운데), 현지 Aleutian Museum 박물관에서 촬영한 모습(오른쪽).

아막낙 온돌터를 만든 사람들의 후예들인 그곳 우난간 원주민들에게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을 장례 끝에 부숴버리는 전통<sup>27)</sup>은 ‘다시 고래가 되어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원에서 신라시대 文武大王이 海中大龍이 되겠다고 자신의 뼈를 부수어 고래나루에 뿌려달라는 “粉骨鯨津(분골경진)”이라는 표현에 일치한다.<sup>28)</sup> 그림 2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알류산열도 탈과 유사한 반구대 岩刻畫에 그려진 탈 암각화는 고래와 함께 그려졌다는 면에서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이었을 것임을 필자가 최초로 주장하여 코리안신대륙발견론이 2009년 11월 25일 처음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미디어로 크게 전국적 뉴스가 되었을 때 사진뉴스로도 소개되기도 했다.<sup>29)</sup>



그림 3. 함경도 웅진군 서포항 굴포리 패총(貝塚)에서 출토된 고래 뼈 탈(왼쪽)과 베링해 이누이트 탈(오른쪽)

한반도에서 출토된 또 하나의 고래뼈 탈은 함경북도 응기군 길포리 서포항에서 아막낙 탈과 같은 시기인 3,000년 전 新石器時代에 만들어진 조개무지 패총(貝塚)에서 출토된 남너 고래뼈 탈들로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인 베링해 이누이트 탈(Inuit Mask)과도 닮아 있다.<sup>30)</sup> 서포항 고래뼈 탈처럼 알류산열도 이젠크(Izembek Lagoon)의 고래뼈 탈도 패총(貝塚)에서 출토된 공통점이 있다.<sup>31)</sup>

베링해 우난간 원주민들의 男根을 노출하고 바다 동물들을 흉내내기도 하는 성적유감주술(性的類感呪術, Sexual Sympathetic Magic)은 반구대암각화의 임신한 고래 앞의 男根을 노출하고 피리를 부는 남성의 후예라 할 수 있다.<sup>32)</sup> 우난간 카약인들의 男根 노출 주술은 新羅時代 ‘카약 닻은 서수형 토기’와도 일치한다.<sup>33)</sup>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인 알류산열도 고래잡이 원주민들의 탈은 우리나라의 전통 상어꾼들의 모습 또는 新羅時代 처용(處容)탈과 그 장식까지 유사하다. [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처용 탈이 대왕고래를 닮아 있다.



그림 4. 한국의 전통 상어꾼들을 닮은 알류산열도 18세기 전통 탈 그림.<sup>34)</sup>(왼쪽). Illustrations of masks in Unalaska, 1790.

대왕고래 얼굴을 닮은 [악학계법]의 처용탈

알류산열도 원주민들의 탈춤을 포함한 바닷가 무속은 동해안 개연리 용왕제의 탈춤과 유사하며 “준비된 곳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 계속된다”는 면에서도 경주 감포 龍王祭 전통과도 유사하다.<sup>35)</sup> 이는 고대 코리안 어부들이 알류산열도 어부들의 祖上이라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인 과학자 알폰세 피나르트(Alphonse Pinart)는 목조 탈들이 나온 알류산열도 운가 섬(Unga Island) 동굴은 고래사냥꾼들(whale-hunters.)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sup>36)</sup> 리디아 블랙(Lydia T Black) 또한 운가 동굴의 탈들이 고래사냥꾼들의 킬트에 연관한 범고래 상징 탈로 보고 “사람과 범고래 사이의 호환 둔갑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sup>37)</sup> 문무대왕이 그의 비문에서 죽어 고래(海中大龍)가 되겠다는 신라인들의 고래환생사상과 이어져 있다.

## 2.3 世界의 신대륙발견론과 코리안신대륙발견론

필자가 2009년이래 주창해온 코리안신대륙발견론은 온돌이 발굴된 아막낙 섬의 유날라스카 市の 시티홀에서 “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라는 영어 강

26) Anchorage Daily News, Aug. 01, 2007. 초기에 인터넷 매체로 알려진 루머에 의하면 온돌터에서 흙을 파내 트럭으로 옮겨간 곳에 버려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27) Dorothy Jean Ray, *Eskimo Masks, Art, and Ceremon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6-7, 1967. Rogers and Anichtchenko, 상계서, pp.68-69 재인용.  
 28) 三國遺事 법민왕편과 文武大王 碑文에서 볼 수 있다.  
 29) “선사시대 코리안이 美 신대륙 최초 발견.” 연합뉴스 2009년 11월 24일. 2009년 11월 20일 국립 수산과학원 산하 장생포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이 한일고래세미나에서 필자의 코리안신대륙발견론을 소개하는 논문 “고래와 한국문화: 코리안신대륙발견설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014년 11월 1일 KBS 다큐공감 74회 ‘한반도에서 알래스카까지! 고래의 길을 가다’는 필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며 ‘고래의 길’이라는 제목도 필자의 조어이다.  
 30) 김원룡, “웅기 굴포리 서포항 貝塚의 遺物,” 역사학보 제32집 1966. pp.170-179.  
 31) 1981년 알류산열도 이젠크(Izembek Lagoon)에서 어부가 해안 지대의 침식된 패총(貝塚)에서 고래뼈 탈을 발견한 것이다.

32) Rogers and Anichtchenko 상계서. p.70. “Natives of Unalaska reportedly also danced in the nude, wearing masks representing various sea animals.”  
 33)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研究.” 한국고래문화학회논문지, No. 2. 2014.  
 34) Martin Sauer, “An Account of a Geographical and Astronomical Expedition to the Northern Parts of Russia: Performed by Commodore Joseph Billings, in the Years 1785 to 1794.”, 디지털 북, [https://archive.org/details/cihm\\_47335](https://archive.org/details/cihm_47335)  
 35) Ivan Veniaminov, “Notes on the Islands of the Unalaska District” (1840), Richard Pierce, trans. Kingston: Limestone Press. 1984.  
 36) “The masks and related artifacts were associated with human skeletal remains from four individuals, and Pinart surmised that the Unga cave was the burial place of whale-hunters.” Rogers and Anichtchenko 전계서, p.71.  
 37) Lydia T Black, “Aleut Art: Unangan Aguqaadangin.” Anchorage: Aleutian/Pribil of Islands Association, Inc. 2003. Rogers and Anichtchenko 전계서, p. 71.



연의 결과 그곳 현지의 *Dutch Harbor Telegraph*에 탐뉴스가 되어<sup>38)</sup> 아막낙 유적 유물이 그곳 연구자들이나 발굴자들 및 언론들에게 ‘from Korea’를 인식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Owen Mason은 2011년 케이프 이스펜버그에서 발굴된 AD 600년 전후의 것으로 확인된 “코리안 청동버클이 고래사냥과의 연관성이 큰 토픽(a big topic)”이라고 말했다.<sup>39)</sup> *Earth Times*(Nov. 15, 2011)를 비롯 미국의 언론들이 알래스카 고고학적 유물 발굴에서 ‘Korea’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Jason S. Rogers의 아막낙 온돌 논문과 고래뼈 탈에 대한 논문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관련 研究 논문들에는 필자 주장의 키워드들인 ‘코리안 온돌’과 ‘고래뼈 탈’ 그리고 ‘고래사냥’이 주 연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sup>40)</sup>

코리안신대륙발견론은 최대 8,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구대암각화의 고래, 카약, 우미악 암각화들을 기점으로 함경도 서포항의 3,000년 전 고래뼈 노(row)와 그곳 패총에서 발굴된 고래뼈 탈(whalebone mask) 그리고 연해주로 올라가 2,500년 전의 北沃沮 온돌에서 다시 알류산열도에서 발굴된 3,000년 전 코리안 온돌(Korean Ondol) 및 고래뼈 탈(Whalebone Mask)에 더하여 케이프 이스펜버그의 청동버클(Bronze Buckle) 등 수많은 유물들을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4,000년 전의 코리안 온돌과 고래뼈 탈이 연속 발굴되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문화는 구체적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필자가 발견해낸 썩시카 인디안들(Siksika 영어명 Black Foot. 코리안처럼 상투 풍습이 있다)의 전통 옷과 옷말판은 우리나라 전통 옷과 옷말판에 거의 일치하며 시카고 코리안 타운에서 최초로 코리안 인디안 합동 옷놀이까지 했다.<sup>41)</sup> 호피 인디안들(Hopi Indians)은 우리나라 전통 캐지나 칭칭나네처럼 풍물놀이를 하는데 그 명칭도 같은 ‘캐지나(kachina)’이다.<sup>42)</sup>

필자가 2013년 현지 답사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막달레나 베이(Magdalena Bay)와 산 이그나시오(San Ignacio) 귀신고래 도래지는 ‘한국계 귀신고래(Korean Stock of Grey Whale)’가 베링해를 거쳐 동해안을 왕래하는 곳이다. 그림6과 같이 Beach to Beach의 북태평양 해안선 루트는 반구대에서 미역길과 귀신고래를 따라 베링해를 거쳐 바하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웨일로드 문명(Whale Road Civilization) 길로 남미 잉카문명 지역의 14,000년 전의 몬테 베르데(Monte Verde) 미역 유적에까지 이어진다.

### 태평양 고래길 ‘웨일로드’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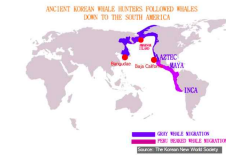


그림 6. Beach to Beach 웨일로드(Whale Road) 문명

## III. 결 론

2002년이래 미국학계의 Beach to Beach Theory의 대세는 동북아시아에서 알류산열도에로의 이주론으로 코리안 신대륙 발견론을 뒷받침한다. 본 研究에서 살펴 본대로 세계 最古 반구대고래암각화를 그린 코리안 고래잡이들(Korean Whalers)이 해안선 웨일로드(Whale Road)를 따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메리카 新大陸으로 이주해 온 돌과 고래뼈 탈을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필자가 주창한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는 센세이셔널한 이슈는 이제 한미 양국의 미디어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客觀性이 입증되고 있다. 2012년 필자의 알류산열도 유날라스카 시청에서 있었던 영어 강연이 알류산열도 전체의 탐뉴스로 보도되었을 때 알래스카 발굴 유물에 대한 다른 관련 연구자들처럼 아막낙 온돌 발굴자이며 알류산열도에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릭 크넥(Rick Knecht) 교수도 필자의 이론을 접했을 것이다.

아막낙 코리안 온돌과 고래뼈 탈은 아막낙 섬 브릿지 사이트 외에도 같은 알류산열도에서도 아시아에 가까운 섬들에서도 더 오래된 것으로 속속 출토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알류산열도로 온돌이 전해졌음을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알래스카 케이프 이스펜버그(Cape Espenberg)에서 2011년 발굴된 AD 600년 경의 ‘코리안 靑銅버클’은 해안선 루트를 따라 코리안들이 이주해온 역사가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0세기 바이킹들이 대서양 뉴펀드랜드에 상륙하여 만났던 베오덕 인디안들(Beothuk Indians)은 황토를 사용하고 종지윳(Bowl and Dice)을 노는 등 8가지 문화가 전통 코리안 문화와 유사하다.<sup>43)</sup> 베오덕 인디안들도 역사시대에 해안선을 따라 이주했을 개연성이 높다.

알류산열도 베링해 문화와 한반도 연안 문화는 다양하게 일치하며 나아가 남북 아메리카 인디안-인디고 문화들과 코리안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진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지리 생태적, 유전자 및 골격학적, 역사 고고학적 문화인류학적 무속과 신화학적 추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38) “Did Koreans Discover The New World?,” *The Dutch Harbor Telegraph*, Aug. 4, 2012, <http://cafe.daum.net/zoomsi/ZxB1/35>

39) “Bronze Artifact From Alaska’s Seward Peninsula May Be 1,000 Years Old,” Associated Press, Nov. 15, 2011.

40) Jason S. Rogers et al., 전게서.

41) 시카고 한국일보. 2007년 3월 13일과 시카고중앙일보. 2007년 3월 13일. 김성규. “내가 찾아낸 인디언 옷과 옷말판(I)” (2006).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XBdl/30>

42) 김성규. “NAKS ‘코리안 신대륙발견 강연’ 소회, 폭소와 눈물과 감동의 순간들!!,”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ZxB1/82>

43) 김성규. “대서양 연안 베오덕(Beothuk) 인디안들은 코리안들이었다!”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ZxB1/233>

- [1] American Archaeological Society. *Archeology*, Vol. 60 No. 3, May/June 2007, USA.
- [2] Anchorage Daily News, Aug. 01, 2007.
- [3] Associated Press. November 11, 2011. Bronze artifact found on Alaska's Seward Peninsula,
- [4] Black, Lydia T. *Aleut Art: Unangam Aguqaadangin*, Anchorage: Aleutian/Pribil of Islands Association, Inc. 2003.
- [5] Black, Lydia T. *Glory Remembered: Wooden Headgear of Alaska Sea Hunters*, (with a reprint of *Aleut Hunting Headgear and its Ornamentation*, by S. V. Ivanov, 1930). Juneau: Alaska State Museums. 1991.
- [6] Chosunilbo, "Ancient 'Ondol' Heating Systems Discovered in Alaska," 조선일보 영어판 2007년 6월 26일자.
- [7] Dillehay, Tom D. et al. *Monte Verde: Seaweed, Food, Medicine, and the Peopling of South America*, *Science* Vol. 320, p. 784, 9 MAY 2008.
- [8] The Dutch Harbor Telegraph, Aug. 4, 2012, Did Koreans Discover The New World?, <http://cafe.daum.net/zoomsi/ZxB1/35>
- [9] Erlandson, Jon M. and Michael H. Graham, James A Estes, Bruce J. Borque, Debbie Corbett, Robert S. Steneck. "Coastlines and kelp beds: an ecological context for maritime migrations to the Americas. Abstracts with Program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35(6): 2003.
- [10] Erlandson, Jon M. et al. "The Kelp Highway Hypothesis: Marine Ecology, the Coastal Migration Theory, and the Peopling of the Americas," *Journal of Island & Coastal Archaeology* Vol. 2 Issue 2 pp.161-174. 2007.
- [11] *Earth Times*, Nov. 15, 2011.
- [12] Frank, H. Roberts. *The Village of the Great Kivas on the Zuni Reservation, New Mexico*. Smithsonian Institution, Bureau of American Ethnology Bulletin, 11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2.
- [13] Fladma, Knut R. "Routes: Alternate zMigration Corridors for Early Man in North America," *American Antiquity*, 44(1). 1979.
- [14] Joseph, Frank. *Advanced Civilization of Prehistoric America*, Lake Book Manufacturing. p.129, 2010.
- [15] Knecht, Richard and Richard Davis. *The Amaknak Bridge Site: Cultural Change and the Neoglacial in the Eastern Aleutians*. *Arctic Anthropology* 45(1), 2008.
- [16] Mathiassen, Therkel. *Archaeology of the Central Eskimos*. Copenhagen: Glydendalske Boghandel. 1927. Rogers, 2011.
- [17] *National Geographic News*, November 6, 2003,
- [18] Bering Land Bridge National Preserve. '2011-2012 Field Project Summary', 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the Interior.
- [19] Ray, Dorothy Jean. *Eskimo Masks, Art, and Ceremon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
- [20] Rogers, Jason S. 2011 *Architecture and Complex Hearth Features at the Amaknak Bridge Site, Eastern Aleutian Islands, Alaska*. *Arctic Anthropology* Vol. 48, No. 2, 2011.
- [21] Rogers, Jason S. and Evguenia V. Anichtchenko. A Whalebone Mask from Amaknak Island, Eastern Aleutian Islands, Alaska, *Arctic Anthropology*,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Vol. 48, No. 1, 2011.
- [22] Sauer, Martin. *An Account of a Geographical and Astronomical Expedition to the Northern Parts of Russia*. London: Cadell and Davies. 1802. 디지털북, [https://archive.org/details/cihm\\_47335](https://archive.org/details/cihm_47335).
- [23] Veniaminov, Ivan. *Notes on the Islands of the Unalaska District*,(1840), (Richard Pierce, trans.), Kingston: Limestone Press, 1984.
- [24]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研究. 한국고래문화학회논문지, No.2. 2014.
- [25] 김성규, 코리안신대륙발견 시원지, 울산반구대 암각화, 한국고래문화학회논문지, 한국고래문화학회, p.35. 2013.
- [26] 김원룡, 웅기 굴포리 서포항 貝塚의 遺物, 역사학보 제32집 1966.
- [27] 완관본 [沈淸傳], 정하영 역주,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154, 1995.
- [28] 경상일보, "울산의 선사인, 알래스카에 갔다: 코리안 신대륙발견모임 고래뼈 탈·온돌터 등 확인," 2012년 8월 22일.
- [29] 뉴시스, "선사시대 코리안이 美 신대륙 최초 발견," 2009년 11월 24일.
- [30] 시카고 중앙일보, 시카고 한국일보, 시카고 한미TV, 시카고 라디오 코리아 방송, "인디언도 옷놀이 했다," 2007년 3월 13일.
- [31] KBS TV 다크공감, '한반도에서 알래스카까지! 고래의 길을 가다'.
- [32] 연합뉴스, "선사시대 코리안이 美 신대륙 최초 발견," 2009년 11월 24일. 인용보도매체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포털다음, 포털네이버, 포털google, 포털 야후 등등.

[33] 연합뉴스, “인터뷰: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 김성규 회장,” 2012년 8월 21일.

[ 저자소개 ]

김 성 규(Sung-Kyu Kim)

1982년 2월 23일 경희대학교 사학과

1987년 2월 23일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90년 5월 13일 Graduate Programs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USA.

2003년 12월 18일 ~ 1893한국전시관복원기념사업회 (The 1893 Korea Exhibit Memorial Monument Association) 창설자/ 회장.

2009년 7월 - 2012년 12월 한미역사학회 부회장. 이사

2009년 5월 26일 ~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The Korean New World Discovery Society) 창설자/ 회장

※주관심분야 : Whale Worship of Silla Kingdom, Kelp, Umiak, Kayak, Karak(駕洛). Exploration of the whale shrines and whale relics in the Pacific Rim.